

B. story prolog



버들치가 사는 마을, 정릉천생활권의 생태적 이름

2021년은 ‘버들치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해

‘버들치마을’은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부터 북한산까지, 정릉천생활권의 생태적 이름이다.

1급수 지표종인 버들치가 사는 정릉천 일대를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며, 함께 탐구하고 즐기는 마을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2020년에 시작된 버들치마을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을에서 꾸는 꿈과 해야 할 일들에 질문과 답을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더욱 내실을 다지고, 함께할 버들치마을 주민들을 결속하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가지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말 그대로 ‘비전 세우기’를 위한 조금은 느린 시간을 많이 가지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기획한 우리의 비전 세우기 목표와

1년간 그 과정을 함께한 계획들이다. 조금하지 않기로 했다. 1년간 여러 일을 해보고

다시 1년, 2년, 5년, 10년을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글 최영미 사진 및 자료 최영미, 양혁진



#1 핵심 활동가 두 명이면 충분하다?

단순하게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보다는 궁서체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함께할 이들과 면접 보듯 이야기를 나누는 후 참여시키며 하나둘 버들치마을 주민을 늘려갔다. 정릉천생활권에서의 더 나은 삶과 우리의 책임을 함께해줄 진지한 활동가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마을에 대한 애정보다는 당장의 급여와 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이 많이 왔다. 경제적 자립은 우리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비전이다. 하지만 지원 사업에만 기대었을 때의 좋지 않은 결과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만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결국 핵심 활동가 둘이 남았다. 버들치마을 이장 역할을 하는 양혁진(두잇)

‘슬로카페달팽이’를 하며 ‘슬로매거진달팽이’를 발행하는 나, 최영미(달팽이)이다. 달팽이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포스터 만들고, 글 쓰고, 사진 찍고, 마을투어 가이드 하고, 요리하고, 사회 보고, 짐 나르고... 온라인 운영도 담당한다. 그렇게 앞에서 두잇이 이끌고, 뒤에서 달팽이가 밀었다.

그리고 우리만큼 마을에 진지한 청년문간밥상 이문수 신부, 호박이닝쿨책 김정훈 대표, 소아암환우돕기 순환터 ‘아크’ 이나경 대표, 마을화가 홍운경 선생, K2인터내셔널코리아 코보리 대표, 흡인정릉 수녀님들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든든한 지지자로 남아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 활동가가 될 이들이 ‘운명’처럼 모였다. 성북예술인모임, K2인터내셔널코리아 고립청년들, 음식시민 동아리, 우리의 심리치료사 타로마스터 하종민 선생 등이 그들이다. 또 공간으로서 청년살이발전소가 든든한 후원군이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따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생각하니, 함께하는 이들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한 해였다. 이들 가운데 다음 해부터 핵심 활동가가 나온다면 더없이 좋을 일이다.

버들치마을 운영진으로 1년을 살며 느낀 것은 마을 디자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두잇과 달팽이가 웬만한 건 다 하지만, 디자인은 전문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가 외부 지출한 것의 대부분이 디자인 비용일 것이다. 이 마을을 좋아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마을 디자이너를 찾는 일, 내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2 우리가 꿈꾸는 버들치마을은?

우리는 어떤 마을을 꿈꾸는 것일까? 어떤 이는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말로 한 달에 두세 번 모여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기획 초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한 것이 아래 네 가지다.

정릉천에 버들치가 계속 살고, 아이들이 언제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정릉, 친환경 활동이 당연한 마을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많아지는 음식공동체의 슬로발리지

공연, 전시, 음악회, 낭독회 등이 일상이 되는 문화가 있는 마을(문화도시)

동네사람들은 물론 외국인까지 놀러오고 싶은 서울의 명소, 문화관광마을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 같은 버들치마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핵심 마을 주민들 각자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고, 그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해주어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두 번째 특집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01 정릉천 수질검사와 생태 탐방

정릉천별뚫대를 조직해 4년째 하고 있는 일이다. 천변 청소로 시작했지만 정릉천은 이제 따로 청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민 모두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버들치가 살아요’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이것이 올해 정릉천을 찾는 주민들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름 모를 물고기가 ‘버들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니 소중한 것이다. 2주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 ‘흙인정릉’ 입구 게시판에 적어두고 블로그 등에도 올린다. 문제가 발생하면 치수과에 신고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해운 생태탐방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릉천 식물그리기 모임도 하고 전시회도 기획했다.

02 우리 동네 투어

정릉부터 북한산둘레길까지, 정릉시장, 아리랑시장, 정릉골, 정릉천변을 아우르는 마을여행. 마을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에 생채 이야기를 더해 우리 동네를 더 깊이 알아가며, 버들치마을의 소중한 또한 공유해본다.

03 느린마을밥상

정릉시장 및 지역재료로 만든 마을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음식이 주는 힘을 느끼고 마을공동체로서 친목을 돈독히 하는 시간!

04 버들치작은음악회

한 달에 한 번, 버들치마을의 꿈을 음악으로 만나자. 결국 마을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 사람 사이에 음악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관계가 형성될 것을 믿는다. 넓은 마당이 있는 슬로카페달팽이, 마을 터줏대감 느티나무 일대, 정릉천변 등이 무대다.

05 버들치마을전시회

버들치마을의 풍경, 사람, 이야기를 전시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버들치마을을 알리고 함께 지켜나갈 힘을 얻자.

06 아이스팩 수거 등 친환경 활동

지난해부터 해운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 활동은 슬로카페달팽이 위주로 계속된다. 미세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황마수세미 나눔도 계속한다.

07 온라인에서의 마을 이야기

코로나19로 직접 모이는 행사를 하지 못해 시작된 ‘정릉천담벼락전시’가 의외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소박하게 컬러 프린트한 작품을 전시하지만 외부 전시 문의가 오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개울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외에 정릉천담벼락갤러리 인스타그램(@jr_dbr_gallery)을 오픈해 온라인 아카이빙도 시작했다.

#3 버들치마을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모임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나눴다. 5개월여간 끊임없이 나눈 이야기의 끝은 '계속 가보자'이다. 버들치마을 프로젝트가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좋은 마을을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심 활동가 양성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고, '주민'이라 불릴 일반 활동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마을 안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단체들과의 협업과 상생, 그리고 서로 보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올 한 해 우리가 고민한 것들은 매우 현실적이다. 몽상이 아닌 실제하는 모습의 버들치마을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개인으로서 시간을 내는 것도 투자다. 우리의 마을활동이 즐거움이든, 보람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무언가 가져갈 수 있는 '일'이길 바란다.

- 버들치가 사는 마을, 사람들의 꿈과 현재 이야기, 서로 도울 것들
- 버들치마을에서 우리가 할 일과 상생을 위한 도전에 대하여
- 마을에서의 바람과 이웃 관계망 이야기 (챙겨야 할 마을의 다른 조직들 등)
- 미래의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한 협력과 역할에 관하여
- 버들치마을의 경제적 자립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 버들치마을에서 오래 살기 위한 활동가의 자립
- 정책동향과 협업안(문화도시, 문화예술교육자치 등)

위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 활동 속에 녹아들었는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해보자. ●

※ 버들치마을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문의처

페이스북 @GmarketG
인스타그램 @gmarketg @jr_dbr_gallery
블로그 blog/naver.com/cfmarket
문의 버들치마을 이장 두잇 010-6692-2102, 재간동이 달곤 010-8652-1223

Special Thanks to

함께 해준 단체, 기관, 사람들이 있어 우리에게 허락된 1년이였다.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 1 지역문화진흥원/문화가있는날 www.rcda.or.kr
- 2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서울실천
- 3 정릉시장청년서포터즈 cafe.naver.com/marketyouth
- 4 국민대행정학과학생회 인스타그램 @kmupa_connect
- 5 정릉천별뚝대 blog/naver.com/riversorkr
- 6 순천향대음식시민동아리 인스타그램 @food_citizens
- 7 K2인터내셔널코리아 k2-kr.com

